

서울~양평 고속도로 노선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.

< 보도 내용 (MBC 시선집중 등, 7.3) >

◆ 강득구 “양평 부동산 가보니... 종점 변경하면 김건희 일가 땅 ‘황금’될 거라고

□ 서울-양평 고속도로 노선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.

- 지난 5월 8일 공개한 노선은 교통수요, 환경훼손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으로 아직 확정된 노선이 아니며,
 - 해당 고속도로 종점 인근 토지는 진출입이 불가능한 통과 구간(중부내륙 고속도로)에 불과하여 주변 지가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.
- 동 노선은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으로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,
 - 환경성, 경제성,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을 조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.

□ 다만,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절차와 타당성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.

담당 부서	도로국 도로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한명희 (044-201-3875)
		담당자	서기관	이종현 (044-201-3904)